

제 98호 교수노조 2: 장단점

교수노조 찬반 투표에 앞서 대학은 큰 몸살을 앓게 됩니다. 각 교수는 교수노조로 인해 얻을 혜택과 불이익을 생각하는 동시에 교수노조라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엇갈리는 이념과 이해타산 때문에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수노조를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교수노조가 해체되는 예는 단 두 번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수노조는 한번 결성되면 거의 영원하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교수노조 결성을 고려하는 대학은 이념과 집념의 회오리바람에 한바탕 휩쓸리게 됩니다.

교수노조의 장단점을 연봉제를 예로 들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미 새시대 교수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봉제를 실시하는 대학에는 교수 연봉인상률이 0%부터 30%를 넘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연봉 삭감에 해당되는 치욕적인 연봉인하가 있는가 하면 "수퍼 스타" 교수를 매수하는 듯한 파격적인 연봉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노조가 있는 대학에는 일단 최소 연봉인상률이 협상되며, 모든 교수는 그 인상률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수가 똑 같은 연봉인상률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 각자의 성과에 따라 차별적 연봉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최소 연봉인상률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최고 인상률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위에 제시된 사항들은 그저 "사실"일뿐 그 자체가 장단점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의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장점으로 보는 교수는 최소 연봉인상률로 하여금 교수가 대학당국으로부터 경제적 위협이나 심리적 부담 없이 지식인으로서 또는 전문인으로서 자신이 믿는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이때 비로소 교수가 가장 존중히 여기는 "academic freedom"을 제대로 발휘하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수노조 찬성파는 아인슈타인이 지식인들을 정치개입과 경제논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UUAP 교수노조에 가입했던 역사적 사건을 "증빙 서류"인 듯 제시합니다.

그러나 교수노조 결성을 반대하는 교수는 최소 연봉인상률 보장제도를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봉 보장 제도는 교수 사회에 안일주의를 초래하며, 유능한 교수들은 교육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보수를 많이 주는 기업을 선호하고 대학을 외면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전반적인 황폐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꼭 대학에 남기를 원하는 유능한 교수는 노조가 없는 대학으로 이직할 것이기 때문에 교수노조가 생기면 그 대학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을 덧붙입니다

교수노조 반대파의 "증빙 서류"는 일류 명문대에는 예외 없이 교수노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견해가 더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는 유능한 교수가 있고, 유능한 교수

집단은 대학 살림에 많은 행사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일류대학은 교수와 행정이 서로를 존중해주고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고 힘을 합치는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교수와 행정이 서로 믿지 못하고 힘겨움을 일삼는 대학은 협력 대신 대립에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느라 대학의 질이 더떨어지는 악순환을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삼류 대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속한 대학이 일류가 될 것인지 이류가 될 것인지는 결국 교수들과 행정(재단, 총장, 보직교수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2000년 11월 6일자 한국대학신문 "새천년 대학개혁 시리즈"에 실린 칼럼 의 일부입니다.)

© 조벽, 2000